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히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2015년도 2학기부터 금강대학교 석좌교수로 강의해 오다가, 금년 초에 제8대 총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2월 24일부터 총장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신학기 개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학생 여러분도 참석한 행사를 개최하고 싶은 마음에, 공식 취임식은 한 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즉, 3월 2일 개학과 더불어 신입생 입학식과 총장 취임식을 대강당에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저의 소망과는 달리, 예기치 않은 글로벌 전염병 사태로 인해 입학식과 취임식을 모두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의논해가면서 우리 학교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정도면 사태가 해결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 두 번째 달로 접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지난 3월 16일 소강당에서 조출한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을 교정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척 많습니다. 사실 금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는 새내기 대학생이 된 여러분에게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위한 한 시간짜리 특강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인 계룡산, 그것도 이성계 장군과 무학 대사가 조선 건국에 대해 논의했다는 국사봉(國事峰)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로 소문난 우리학교 교정에는 지금 봄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목련과 벚꽃도 활짝 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웬일인지 그 꽃들이 정겹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교의 주인인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영산홍도 교정을 짝 채울 것입니다. 적어도 그 때까지는 이 사태가 진정되어 여러분을 교정에서 만나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금강인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20년 4월의 둘째 날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보냄